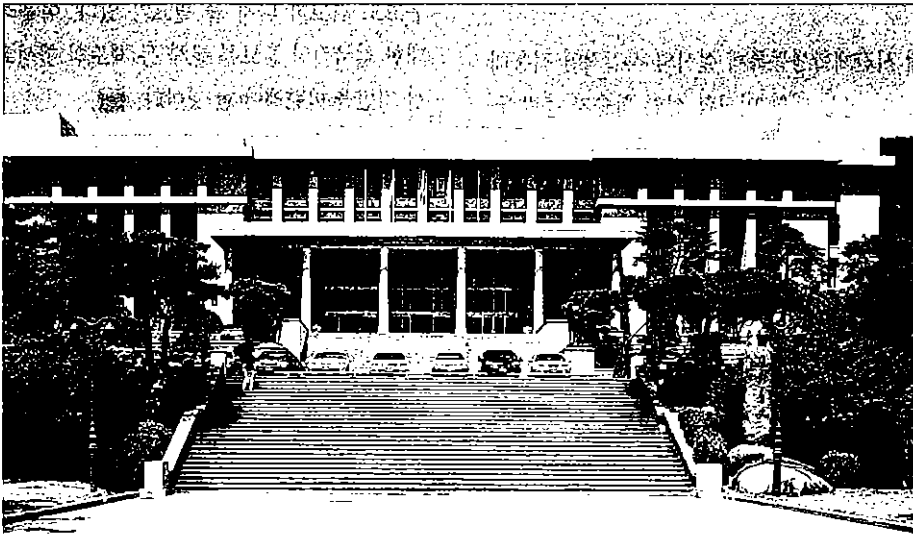


## ‘대학이 배우는 대학’ 경남대학교

경남대학교 홍보실



▲ 경남대학교 본관

경남대학교는 1946년 이승만, 김구, 김규식, 조소앙 선생 등 민족 지도자들이 신생조국을 부흥시키는 일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의식 속에 민주주의를 생활화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공통된 인식하에 국민대학 설립추진을 위한 기성회를 결성하고, 이를 모체로 국민대학관을 설립하여 초대 학장으로 신익희 선생이 취임함으로써 그 역사가 시작되었

다. 이후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해인대학과 마산대학 시절을 거쳐 1971년 교명을 경남대학으로 변경하고, 가고파의 고향 마산에서도 가장 경관이 뛰어난 월영언덕에 새로운 캠퍼스를 건설함으로써 제2의 건학을 맞이하였다. 1982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결과, 2년 연속 교육개혁 우수대학과 대학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대

학으로 선정되는 등 국가가 공인하는 대외적 성과를 토대로 지금의 지역 명문 사학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6개 단과대학, 19개 학부, 10개학과, 6개 대학원에 15,000여 명의 학생과 900여 명의 교직원인 지역의 학문과 문화, 교육 발전을 위한 구심체로서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제 3의 건학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다.

## ■ '대학이 배우는 대학'

경남대학교는 1994년 전국 대학 최초로 연봉제 약제 도입, 강의평가 실시, 연구소 통폐합을 추진하였고 1997년에는 교수업적평가제 도입, 수평적 행정조직으로의 팀제 실시, 부서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대학 개혁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1889년부터 학생들에게 예결산서를 공개하고, 대학발전협의회를 통하여 교수, 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교수, 직원,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 동문, 지역 인사가 모두 참여하는 총장선출위원회에서 총장을 선출함으로써 등록금 협상이나 총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학사운영이 파행으로 치달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또한 대학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 할 수 있는 교무위원회에 교수 대표와 직원 대표가 참여할 정도로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대학 운영을 실천함으로써 자타가 인정하는 '대학이 배우는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 ■ 신대학발전계획과 한마비전 2010

경남대학교는 1998년에 21세기 대학의 미래상과 대학발전의 청사진이 될 '신대학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세계화·지방화를 실천하는 21세기형 지방대학의 모델 구축'을 위한 의욕적인 새출발을 선



▲ 경남대학교 홈페이지

언하였다. '신대학개념'은 21세기가 요구하는 대학의 사명과 사회적 책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대학의 구조와 운영체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인식하에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대학 운영 모델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신대학개념'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로는 교육대상자의 다양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 다학문 복합체제, 교육장소와 방법의 다양화, 지역친화적 기업형 대학을 들 수 있다.

또한, '한마비전 2010'은 경남대학교가 2010년까지 도달할 미래상의 총체로서 교육대상, 특성화, 대학교류, 취업, 대학원, 연구소 등 분야별 발전전략을 축약한 8대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 21세기 유망직종을 고려한 새로운 학부와 전공 신설

경남대학교의 정체성(identity)은 '직업교육 중심대학'이다. 교육조직과 교육과정, 그 운영방법 또한 철저하게 진로 트랙별로 설계되어 입학시부터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하나씩 이루어 나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취업중심 교육프로그램의 핵심이다. 따라서 교육조직도 사회적 수요와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3월, 2004학년도 신입생들을 위한 교육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그 초점은 역시 '21세기 산업구조와 유망 직종'에 두었다. 기존의 백화점식 구색맞추기나 공급자중심의 학부 운영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한다는 문제인식하에서 수요자들의 선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신설 학부는 문화컨텐츠학부(문화공연예술 전공, 디지털문화창작 전공), 생활과학부(식품영양학 전공, 건강스포츠학 전공, 패션의류학 전공), 관광학부(관광경영학 전공, 관



광통역학 전공), e-비즈니스학부(e-비즈니스학 전공, 경영정보학 전공), 군사경호학부(군사학 전공, 경호비서학 전공), 식품생명공학부(식품공학 전공, 생명공학 전공) 등 6개 학부로 21세기에 각광받을 분야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번 개편에서는 기존 학부의 명칭 변경과 전공 신설도 함께 있었는데, 신설 전공으로는 사회과학부의 실버산업복지학 전공, 정보통신공학부의 정보통신시스템공학 전공과 전파·이동통신공학 전공, 에너지화학공학부의 고분자공학 전공, 신소재공학부의 뉴세라믹재료 전공과 나노·메카트로닉스재료 전공 등이 있다. 이번 교육조직 개편은 이미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본교의 전 구성원들도 이번 학부 개편이 21세기형 지역대학 모델 구축을 위한 계기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준비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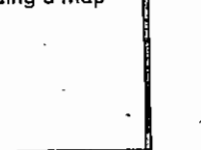
## ■ 밝은 미래, 제3의 건학을 위한 '도전과 혁신'

지난 2월, 제7대 박재규 총장이 취임하면서 밝힌 도전과 혁신(challenge and innovation) 프로그램

ography terms



Reading a Map



은 우리 대학의 정체성을 '역동성, 신뢰성, 경쟁력이 강한 대학' (toward a dynamic, reliable and competitive university)으로 재정립하고 있다. 또 이 구상은 '교육이 강한 대학'을 핵심 추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로 미루어 볼 때 경남대가 나아갈 방향은 더욱 뚜렷해졌고, 미래의 비전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란 확신도 컸다. 초대 학장 신익희 선생의 실학주의를 일관되게 실천하고, 불망구국과 실천공행의 건학정신을 이어 나가 '진리, 자유, 창조'의 교육이념과 '교양 있는 전문인·지역발전의 창도자·주체성 있는 세계인'이라는 교육목적 아래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실용 중심의 교육을 고집하는 경남대학교의 미래는 그 오랜 전통과 지역의 사랑만큼이나 밝다고 하겠다. **한**